새로 지정된 국보 · 보물 '한자리'서 만난다

문화재청 · 국립중앙博 '신국보 · 보물展'

2017~19 지정 국보 · 보물 83건
국보 공개 전시로는 사상 최대
불교 전문 전시공간 별도 운영
부여 왕흥사지 사리구 등 공개
9월27일까지… 부대행사 '다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과 함께 '새 보물 납시었네 - 新국보보물전 2017~2019'를 9월 2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새롭게 지정된 국보와 보물 157건 중 이동이 어려운 문화재 등을 제외한 83건 196점을 공개하는 자리로, 국보와 보물 공개 전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전시는 △1부 '역사를 지키다' △2부 '예술을 펼치다' △3부 '염원을 담다'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3부 '염원을 담다'는 우리나라 국보 · 보물의 절반이 넘는 불교문화재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시를 위해 조계종 산하 9개 사찰이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00년 전 한반도에 도래한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왔으며,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귀의처였다. 이를 위해 선현들은 전국 곳곳에 사찰을 세우고 탑을 건립하며 불상과 불화를 봉안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불경을 간행하며 인쇄술의 발전도 이끌었다.

이번에 전시되는 불교문화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성보는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인 국보 제27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로, 백제시대 불교 신앙과 정교한 공예기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불교 경전을 인쇄하기 위해 새긴 '묘법연화경 목판(보물 제1961호)', 〈선림보훈(보물 제700-2호, 충주박물관 소장)〉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보물 제875-3호〉 · 〈월인천강지곡 권상(국보 제320호)〉 등 불교 경전과 서적에서는 우리나라 불교 기록문화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보물 제2015호)',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제2003호)' 등 불화와 불상도 전시된다.

1부 '역사를 지키다'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록 유산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전시에는 국보로 승격된 〈삼국사기(국보 제322-1호)〉 · 〈삼국유사(국보 제306-3호)〉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 등 다양한 역사기록물이 출품됐다.

2부 '예술을 펼치다'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미의식이 담긴 예술품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고려 초기의 청자 제작을 보여주는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국보 제326호)', 고려 상형청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보물 제1932호)' 등 고려청자들도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1부 전시장에는 검색화면용 탁자를 설치해 〈조선왕조실록〉을 흥미로운 주제별로 나누어 관람객이 직접 선택해서 검색해 볼 수 있게 했다. 2부에서는 46억 화소로 스캔한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를 30m 길이의 장대한 크기로 해당 문화재 전시공간에 펼친다.

3부에서는 이번 전시 공간에 함께 소개되지 못한 국보나 보물로 새롭게 지정된 사찰, 누정 등 건축문화재와 대형 괘불의 생생한 영상을 상영하여 전시의 입체감을 더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단위로 관람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

전시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관람객을 위해 매주 전시 장면과 주요 전시품 등을 담은 온라인 전시를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하고, 문화재청이 선정한 주요 전시품 30건의 온라인 전시를 21일부터 다음 갤러리에서 열 예정이다.

국보와 보물의 궁금증을 풀어줄 온라인 강연회도 7월 29일, 8월 5일, 8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 마련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에서 생중계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국보와 보물을 국민에게 공개해 함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했다"면서 "지난 2017년에 처음 개최했던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신국보보물전 2014~2016' 이후 3년 만에 힘을 합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기획한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었네 – 新국보보물전 2017~2019'에서 공개되는 불교 성보문화재들. 사진 왼쪽부터 국보 제27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보물 제1961호 묘법연화경 목판.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20일 지정예고
첫 보유자엔 김경호 원장

불교 경전을 널리 전하기 위해 옮겨 적는 기술인 '사경(寫經)'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사경장(寫經匠)'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김경호 화엄사 전통사경원장을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사경장'은 불경(佛經)을 쓰는 사경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사경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 유묵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은 통일신라 시대에(745~755년) 제작됐다.

사경은 고려 시대에 불교가 성행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특히, 충렬왕대에 중국에 수백 명의 사경승(寫經僧)을 파견하는 등 대외적으로 고려 사경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의 첫 보유자로 인정된 김경호 화엄사 전통사경원장이 사경을 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쇠퇴했으나, 일부 왕실과 사찰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됐다.

사경 제작은 크게 필사 · 변상도(變相圖) 제작 · 표지 장엄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금가루 발색 △아교 만들기 △종이의 표면 처리와 마름질 △잇기 △선긋기 △경 필사 △변상도 그리기 △표지 그리기 △금니 표면처리 등 10여 가지 공정을 거친다. 또한 경전의 오자 · 탈자가 없어야 하므로 고도의 집중력과 장기간의 제작 시간이 필요하다.

사경은 서예 · 한문 · 불교 교리 · 회화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능이 요구된다. 사경이 수행과 예술이 접목된 종합예술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경장'의 첫 보유자가 된 김경호 원장은 높은 지난 40여 년간 사경 작업에 매달려온 장인이다. 1997년 조계종에서 개최한 '제1회 불교사경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2010년 '대한민국 전통사경기능전승자'로 선정됐다.

김 원장은 오랜 기간 문헌과 유물을 통해 사경의 재료, 형식, 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기술로 승화시켰다. 또한 각종 교육 기관에서 사경 관련 강의를 하고 다년간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서적을 저술하는 등 사경 전승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김경호 사경장은 "정부가 사경의 중요성을 인정해 준 것이어서 감사하다. 사경장 첫 보유자가 됐는데 책임이 크다. 한국 전통 사경의 보급 ·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사경 전문 장인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며 전통사경의 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진흥원, 청년불자 양성에 2억원 지원

제1기 대원청년불자리더상 및
동아리상 시상…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청년불교 활성화와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인재 양성에 나섰다.

진흥원은 7월 20일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대원청년불자 리더상 · 동아리상 공모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제1기 수상자를 선정하고, 총 2억 4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진흥원이 1기 리더상 수상자 중 1명인 홍사훈 고려대 대학원생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제1기 리더상 · 동아리상은 올해 4월 공고 후 5월 15일까지 후보로 접수된 총 172건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불교동아리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리더상 59명, 동아리상 39곳을 최종 선정했다.

제1기 수상자에게는 상금 총 2억 45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진흥원은 같은날 대원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 제1기 수상작을 선정하고, 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에서는 학술 부문 2편과 콘텐츠 부문 12편 등 총 14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에 통학 자전거 지원

7월 16일 전달식…저소득가정 대상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전달했다.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7월 16일 캄보디아 시엠립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아동 통학용 자전거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자전거는 1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이버 해피빈 '통학용 자전거 지원 캠페인'을 통해 모연된 금액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에는 317명의 후원자가 참여했으며, 자전거가 없어 학교까지 한 시간 가량을 걸어 다녀야 했던 저소득 가정 학생 10명에게 자전거를 전달하는 토대가 됐다.

자전거를 지원받은 아동 10명은 캄보디아 시엠립주의 추천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선정됐다. 송지희 기자